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5일, 이달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6.1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3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9.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희 의원)

최근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 기상이변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의 산불과는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음.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막대한 산림 자원 소실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의 붕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주민 생계 및 주거의 파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였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이와 같은 초대형·광역 재난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기존 제도로는 구제받지 못한 피해를 보완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복구와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상시화·대형화되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회복과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